

캐릭터 등 수집용 카드 봇물… 휴면카드 발생 속도 가팔라

카드사 8곳 휴면카드 1345만장
지난해 동기 대비 18.6% 증가
비씨 86.4만장… 29.7% 늘어
PLCC·캐릭터 카드 주범 거론



휴면카드가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사의 손익이 감소한 가운데 고객 이탈까지 계약재를 만났다 /뉴스시스

올해 휴면카드 발생 속도가 지난해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의 감소와 고객 이탈로 카드사가 계약재에 처해 있다. 휴면카드 발생의 주범으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와 캐릭터카드 등이 꼽힌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휴면카드는 총 1345만장이다. 지난해 동기(1134만장) 대비 18.6%(211만장) 증가했다. 휴면카드는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카드를 의미한다.

최근 1년 새 휴면카드 비중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비씨카드다. 3분기 비씨카드의 휴면카드는 86만4000장으로 지난해 동기(60만7000장) 대비 29.7% 늘었다. 이어 ▲삼성카드 21.9%(31만8000장) ▲현대카드 20.5%(34만2000장) ▲신한카드 17.9%(31만5000장) ▲

KB국민카드 17.3%(28만9000장) ▲하나카드 16.4%(19만3000장) ▲우리카드 14.8%(19만5000장) ▲롯데카드 11.7%(11만7000장) 순이다.

휴면카드 증가는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손꼽힌다. 신용카드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자금이 수포로 돌아가는 만큼 매출비용이 커져서다. 통상 신용카드 한 장을 개발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한다. 대형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업계에서는 휴면카드 증가 요인으로 PLCC를 지목했다. PLCC는 제휴 기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브랜드가치, 유행여부 등에 따라 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에서 PLCC를 선호하

고 있는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올해 전업 카드사 8곳 중 휴면카드가 세 번째로 증가했다.

캐릭터카드 또한 휴면카드의 주범으로 거론된다. 캐릭터카드란 플레이트에 만화 캐릭터, 아이돌 등이 그려진 상품이다. 업계에서는 캐릭터카드가 결제수단이 아닌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석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MZ세대 확보를 위해 캐릭터카드를 출시하고 있다”면서 “디자인을 굿 수준으로 높여 출시하다 보니 사실상 기념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휴면카드는 지난달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휴면카드 관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휴면카드가 증가할수록 카드사의 매출비용과 금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휴면카드 정리 시스템 도입을 시사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두고 물음표를 던졌다. 관리가 소홀한 만큼 과거에는 도용,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9년을 시작으로 디지털 고도화를 본격화한 만큼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한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국감에서 휴면카드 해지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르면 내년 중에 소비자에게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대기자 수천명인데… 생보사, 규제에 요양시설 진출 난항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23.4만명
고령화·돌봄공백에 수요 급증
KB라이프 등 생보사 요양산업 진출
토지·건물규제에 초기 비용 부담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해 입소 대기지만 수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보회사들이 요양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시스

요양시설 입소대기지만 수천명에 이르는 등 인기가 뜨겁지만 생명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설 개소를 위한 토지·건물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돌봄공백 발생 등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는 2014년 14만2382명에서 2022년 23만428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요양등급을 살펴보면, 3등급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등급 32.4% ▲2등급 19.8% ▲1등급 9.2% ▲5등급 2.2% 순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재가급여를 원칙으

로 하는 3~4등급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69%를 차지한다”며 “이는 가족 내 돌봄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인정자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음’(74.4%)이 가장 높았다.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생보사들은 요양시설 개소 등 요양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규제로 인해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KB라이프생명은 업계 최초로 요양산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요양시설 개소 후 입소대기지만 수천명이 몰리는 등 수요가 높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전체 빌리지와 시설을 합치면 대기자는 5000명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도 2027년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 요양시설 건설 부지 매매를 진행 중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전

담 TF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요양시설의 수요 급증에도 생보업계는 토지·건물 임차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주거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시설을 개소하려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수도권에 시설을 개소하려면 부지가 몇 백억 단위여서 부담이 있다”며 “규제 완화가 된다면 다른 후발 생보사들도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보사들은 미래의 핵심 사업 측면에서 요양산업에 진출하려 한다”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요양시설을 제공하면 이용자의 수요해소와 생보업계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서로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건설-중부발전-KIND 美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본격 착수

현대건설,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KIND)가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건설과 한국중부발전, KIND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미국 태양광 및 연계 발전사업 개발·건설·운영 ▲사업 수익성 제고 및 타당성 확보방안 모색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 미국 발전사업의 동반진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의 신규 발전 설비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46%(2022년 기준)로 10년 전 15%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내 운영 중인 태양광 용량은 총 153GW로, 2028년에는 375GW, 이 추세에 따라 2050년에는 현재 대비 10배인 약 157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개발단계부터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세계적인 시공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의 개발 및 EPC(설계·시공·조달) 분야에, 한국중부발전은 국내의 다수의 발전사업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KIND는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자금 지원 등에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3사가 체결한 이번 파트너십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통한 글로벌 RE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우리은행, 외국인 맞춤형 banking ‘우리WON글로벌’ 출시

17개 언어… 업계 최다 지원

우리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편리하고 쉬운 금융거래를 위해 맞춤형 모바일 banking 서비스 ‘우리WON글로벌’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WON글로벌’은 동남아 국가 대부분의 언어를 포함했으며, 은행권 어플을 통틀어 가장 많은 17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미얀마어)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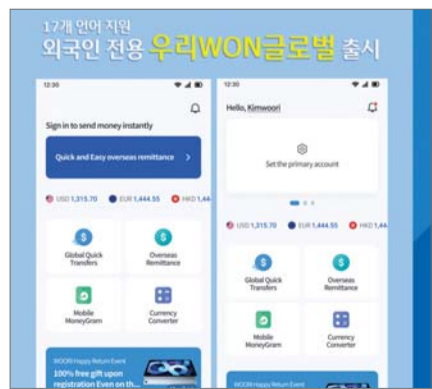
‘우리글로벌뱅킹’을 재구축해 출시한 ‘우리WON글로벌’은 외국인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송금서비스를 강화해 기존 서비스인 우리글로벌송금, 모바일 머니그램, 캄보디아WING 해외송금 외 ▲입금 금액이 즉시 자동 송금되는 ‘우리ONE해외송금’과 ‘다이렉트 해외송금’ ▲수취인명 및 은행카드 번호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우리는련송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외국인 특화 비금융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출국 만기보험금 접수대행’ 서비스와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배송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WON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부터 신규가입 및 해외송금 이용 고객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 5000원(신규가입) ▲편의점 모바일 쿠폰 1만원(1회 이상 해외송금) ▲치킨 쿠폰(2회 이상 해외송금)을 각각 2000 명씩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추가로 한 달 누적 해외송금 건수 상위 10명에게는 배달음식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



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고객이 모국어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WON글로벌’을 출시했다”며 “‘우리WON글로벌’이 외국인 고객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banking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